

투데이 칼럼

최고의 북한 소설 '벚'

지난해 미국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최고의 세계문학으로 선정한 북한 소설 <벚>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 백남룡 작가의 소설 <벚>은 1988년 북한에서 출간됐고, 지난해 4월에 영어로 번역됐다.

이 소설은 북한 문화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을 소재로 삼고 있다. 미국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은 이 소설이 정치·사상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1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드라마 '가정'이 방영됐다. 소설 '벚'이 바로 드라마 '가정'의 원작이다. '이혼'을 주제로 한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북한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선반공인 석춘과 성악 가수 순희가 주인공이다. 30대인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해 가정을 이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결국 순희는 북한 인민재판소를 찾았다.

그리고 이혼 소송장에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 간다. 당초 10부작으로 예고된 드라마는 9부를 끝으로 방영이 중단됐다. 드라마 내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이 드라마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의 원작 소설 때문에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1988년 평양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장편소설 '벚'은 소재에서 기존 북한 소설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부터 북한 문화는 북한 지도자의 업적이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다루기 시작했다.

북한을 대표하는 4·15문학장작단 역시 김씨 일가의 영웅적 행적을 작품화하기 위해 조직화된 창작 집단이다. 1949년생으로 알려진 백남룡 작가도 4·15문학장작단 소속으로 여러 편의 지도자 찬양 작품을 썼다. 하지만 1988년 발표한 '벚'은 달랐다. 주목할 점은 북한 소설 '벚'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됐다는 점이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한반도 해

빙의 분위기에 맞춰 남과 북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1992년 '벚'이 한국어에서 출간되었다.

그 뒤 2001년 '벚'은 프랑스에서 북한 문화 최초로 번역 출간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당시 '벚'은 체제 찬양이나 우상화에서 벗어나 연애와 결혼 등의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프랑스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19년이 흐른 2020년 미국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벚'을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작품성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것이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소설 <벚>이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체제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백남룡 작가는 32년 전 이혼이라는 북한 사회 문제를 소설로 담아

냈다.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대학가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진 적이 있다.

그때 일부 출판사에서는 해적판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만큼 화제가 됐던 소설이다. 2018년도에 다시 출간이 되면서 여전히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 정식 출간된 북한 유명 소설 작품은 현재 40여권 정도다. 이 가운데 <황진이>는 남한 작가들이 많이 썼다. 북한에서도 흥석준이라는 작가가 <황진이>를 써서 2002년 한국어에서 공식 출간됐다.

당시 남한에서 북한 작가의 <황진이>가 출간된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2004년도 남한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만해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다. 내밀한 모습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문학 작품들도 정치성이 매우 강하다. 사상을 중요시하고, 일과 노동을 중심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북한 소설 <벚>과 <황진이>의 경우는 다르다. 가정과 사생활 등이 많이 담겨져 있다.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책 속에 표현한 것이다.

사설

기후 변화의 경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재앙으로 물러오고 있다. 기후 변화는 기후의 평균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지구는 기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영하의 기온이 나타난 날이 1940년 이전에는 연 120일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연 90일 내외로 줄었다.

영하의 날이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기온의 상승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의 자연적 원인은 지표면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 대기 구성의 변화, 지표면 상태의 변화 등 다양하다.

산업화 이전의 기후 변화는 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해 나타났다. 태양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가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한다.

대기에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

가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화석 연료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했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다.

그 다음은 메탄이다. 메탄은 소나 양 등 가축의 배설물과 벼농사와 같은 농업 활동,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동안 지구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을 반복해 왔다.

과거 1000년 동안에는 기온이 겨우 1도 올라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100년 만에 온도가 1도 올라갔다. 기후 변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되면 해수면 높이가 매우 높아진다.

결국 많은 도시들이 물속에 가라앉게 된다. 농작물 생산도 크게 줄어든다. 지구 재앙은 볼 듯 변한 일이다. 세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노인회 전북연합회 신규코치 교육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의 2021년 노인자원봉사클럽 신규 코치 교육이 지난 16일 연합회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신규 코치와 관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노인이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는 자원 봉사만한 것이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 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원봉사 클럽 운영과 회원 관리 방법, 마을 공동체 자원봉사 활동, 노노케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방법 등이 소개됐다.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특수성에 맞는 방향을 제시했다.

봉사 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와 자긍심을 심어주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시태봉 전주우리병원 행정실장과 우보환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장은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왕진숙 센터장이 행정 실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코

치란 노인 자원봉사 클럽의 리더이다. 한 개 클럽에 2명의 코치를 중심으로 20명 이상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봉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자제하고 실외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규 클럽은 사회복지 시설과 요양원 등을 방문해 공연 활동을 한다.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그밖에 청소년 안전을 위한 등하교길 안전 방법 활동, 등산로의 환경 감시 활동, 그리고 마을의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의 활동을 펼친다.

클럽 코치들은 모두 클럽 리더이다. 봉사자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독거노인과 소외 계층에게 정신적, 육체적 자발적인 봉사과 재능 기부를 하게 된다.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 강화가 해법이다

선진국 미국은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비극을 초래할 정도로 낙후된 의료보장체도로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건소 검진과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 전체 의료기관에서 10%도 못미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됐다.

*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 동의비율: 코로나 이전 22%→이후 67.4%. (2020.6월 전국인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 국립중앙의료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하다. 공공의료 병상

수 기준, 프랑스 61.5%, 독일 40.7%, 일본 27.2%, 미국 21.5%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중은 5.7% 병상수로는 10.0%(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되어 의료의 공공성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성이 더욱 강조되어 필수요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배치, 환자 안전보장, 의료진탈체제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 강

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 공공의료 강화 법정부 TF'를 구성하였으며, 예산당국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취약지역·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을 제공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양적으로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및 적정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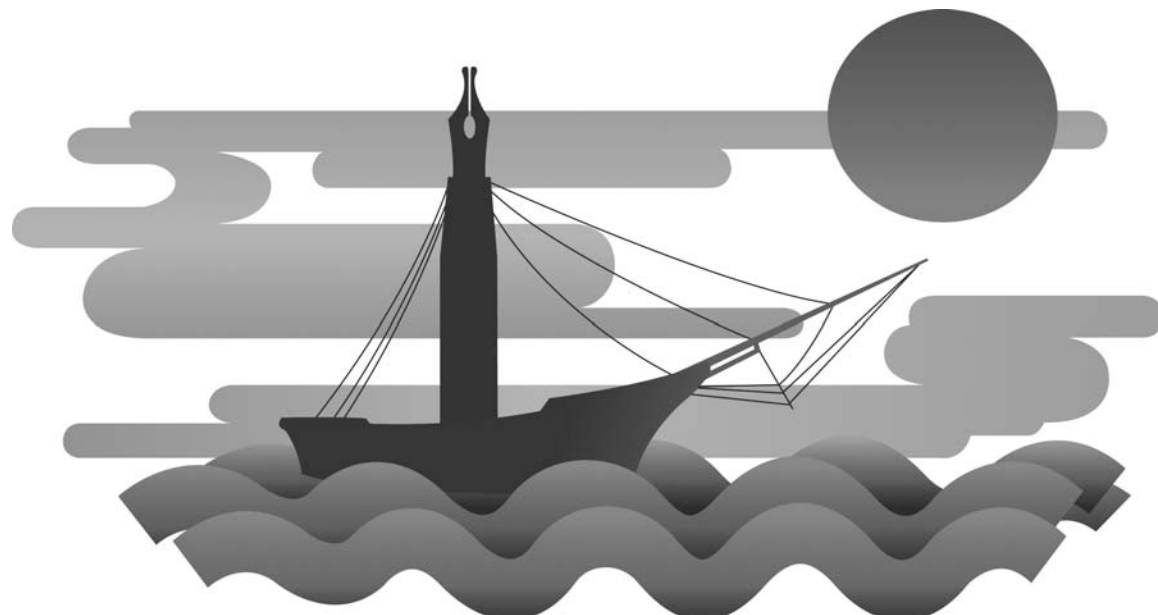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들 중 공공병원을 설립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급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성장으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가정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지원을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될 것이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도입, 보험자가 공공병원을 국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을 전략적으로 구매하여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전체 보건 의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윤태중 참여환경운동연대 대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